



# 화재 원인은... 대성호 사고 조사 시작

### 해경 이틀째 수색 작업 실종자 11명 아직 못찾아 물에 뜬 선미 인양한 후 국과수 등 정밀감식 계획 숨진 선원 부검결과 의사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 실종자 수색 이틀째인 20일 해경 함정과 단정이 대성호 선미 부분이 있는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제공 영상 캡처

제주해상에서 조업 도중 불에 타 선원 다수가 실종된 대성호의 사고 원인을 밝힐 조사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제주대학교 실습선 아라호를 사고 해역인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 투입해 통영선적 대성호(29t)의 선미 인양을 시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선적 인양을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작업 4시간여 만에 이날 오후 6시15분쯤 잠정 중단됐다. 해경은 너울과 높은 파도로 요동이 많이 쳐 이 상태로 인양을 강행하면 선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해경은 기술진과 협의 후 다시 인양을 시도할 지 검토하고 있다. 대성호는 화재로 두동강 난 후 전복됐다. 현재 선미(선체 뒷부분)만

해상에 떠 있고 선수(선체 앞부분) 등 나머지 선체는 모두 유실됐다. 대성호는 설계도면상으론 통신장비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주요 전자기기가 있는 조타실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어창(어획물 보관창고) 5개와 탱크 등이, 뒤 쪽에는 선원 침실과 조리실, 탱크 등이 있다. 해경은 대성호 선미를 인양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박기술협회,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정밀 감식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성호 선수는 불이 난 뒤 유실돼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사고 해역 수심은 약 80m다. 해경은 어군탐지기와 음파탐지기를 이용해 대성호 선수를 찾고 있다. 수중 수색에 더 용이한 해군의 무인잠수정(ROV)은 현재 바다에 추락한 독도 소방구조헬기를 찾기 위해 독도 해역에 투입된 상태여서 당분간 대성호 선수 수색 작업에는 투입

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수까지 모두 인양해야 밝힐 수 있다.

숨진 선원의 부검 결과도 사고 원인을 밝힐 주요한 단서 중 하나다.

이날 오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된 1차 부검 결과 전날 차귀도 해상에서 발견된 대성호 선원 김모(60·경남 사천)씨는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시신은 이미 발생한 불에 짧은 시간에 노출돼 얼굴과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상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해경은 전했다. 김씨는 발견 당시 검은색 내의 상의와 얇은 운동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 작업복이 아닌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일 때 불이 난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대성호는 19일 오전 4시15분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끊겼으며 3시간 뒤인 오전 7시55분쯤 인근 어선이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불에 타고 있는 대성호를 발견해 신고했다. 사망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 1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이상민기자

#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수위'

### 지난해 17건 발생... 전년보다 갑절 이상 증가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운전자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8일 오후 6시쯤 제주 시내 모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동하던 승용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A(9)양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9월 24일 오후 2시쯤 서귀포 시내 모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주차된 차량 사이를 나오던 B(8)군이 학교 앞을 지나던 승용차와 충돌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은 2016년 6건, 2017년 7건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에는 1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인원은

2016년 7명, 2017년 7명, 2018년 18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회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을 지난 9월 발의했지만, 상임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식이법'은 내달 10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며 "내 아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고 스쿨존 내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존중·선택 환영한다" 제2공항반대단체 논평

### "문 대통령 발언 환영 정부 조속히 추진하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 성명

제주제2공항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도민 자기 결정권과 공문화 해명에 대한 지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제2공항 문제는 도민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으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문화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청와대에 보고되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정보는 객관적이지 않고 심하게 왜곡돼 있다"며 "이는 제2공항에 대한 정보의 주체 공자인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는 지금 즉시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와 함께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며 제2공항의 조속한 정부고시와 추진을 촉구했다.

성산읍추진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2공항에 대해 제주도민의 선택이 제2공항이라고 정부는 제주도민의 선택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정부가 기존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며 그 선택을 주민들의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성산읍추진위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마친 점을 강조했다. 조성훈기자

# 한·일 청소년 10여년 민간교류 '눈길'

### 서귀포시-가시마시-기노카와시 중학생 홈스테이

얼어붙은 한일관계 속에서도 서귀포시와 자매도시인 일본 가시마시와 기노카와시 중학생들과의 교류가 올해로 각각 14년째,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 홈스테이 교류단으로 관내 19개 중학교 학생 28명이 지난 6월과 10월 가시마시와 기노카와시를 각각 방문했고, 일본에서는 가시마에서 이달 1~4일, 기노카와에서 16~19일 제주를 찾았다.

교류는 두 나라 중학생들이 각각 홈스테이를 하며 친교 시간을 갖고,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프로그램에도 참가하며 또래 학교문화를 접하고 지역을 둘러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한일 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그동안 이어오던 청소년 상호교류를 변함없이 진행, 미래 세대에겐 든든한 가교가 돼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두봉 정상에서 본 한라산과 신제주 맑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난 20일 제주시 도두봉 소재 도두봉에 오른 관광객들이 한라산과 신제주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상민기자

# 제주대 정시모집 설명회

제주대학교가 제주지역 11개 고교를 대상으로 '2020학년도 정시 대학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 19일 대기고와 세화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설명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설명회에서는 대학 강점 분야 홍보, 정시모집 주요사항 설명, 특성화학과 소개, 단과대학별 입학·진로·장학 등이 소개된다. 진선희기자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 흑염소 체험농장

## 제주 편백 숲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태그  
매일 추천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 흑염소탕 / 전골
- 수육 / 육회
- 숯불구이 / 떡갈비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고기 식당 납품 가능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 T.064.805.5099 T.064.764.6678